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조국해방 50돐 민족통일대축전

사대야 어찌이것이 평강이

조국 통일은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 것만큼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나가야 할 역사적책임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민족의 모든 성원들이 민족자주의 의식으로 든든히 무장하고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하는 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은 민족의 모든 성원들이 투철한 자주주의로 무장하고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설 때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할수 있지만 큰 나라를 맹목적으로 섬기고 남의 힘만 믿다가는 나라와 민족이 망하고만나는 길

은 뜻이 담겨져있다.

민족자주의식이 민족을 강하게 하고 나라를 흥하게 하는 사상적합이라면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은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상적독소이다.

사대와 외세의존이 망국의 길이라는것은 민족수난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뼈아프게 체험한 심각한 교훈이다.

우리 나라가 지난 세계초일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게 된것은 봉건통치배들이 자기 민족의 힘을 믿지 않고 큰 나라를 섬기고 숭배하면서 사대주의를 하였기때문이다.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외세의 침략행위로 하여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이르는 때에조차 자제로 힘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제각기 큰 나라를 등에 업고 당파싸움만을 일삼았다. 그러다나니 나라의 왕궁도 어느 파벌이 득세하는가에 따라 외국군대가 번갈아가며 지키는 판국이 되었고 국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쇠퇴해졌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는 봉건통치배들의 사대매국책으로 하여 우리나라는 결국 일제에게 먹히우고 조선민족은 40여년간이나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당하게 되었던것이다.

망국적인 사대와 외세의존의 후과는 비단 이뿐이 아니다.

70여년의 기나긴 세월 우리 겨레가 아직도 민족분열의 고통속에 신음하고있는것도 중요하게는 외세에 빌붙어 동족대결만을 일삼는 사대매국세력의 책동과 적지 않게 관련되어있다.

승미사대주의에 빠진 남조선의 역대 집권자들은 미국

을 등에 업고 외세의 침략정책을 추종하여 반동일적인 매국배족행위를 감행하여 왔다.

지금 조선반도문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계속 복잡하게 번져지고있는것이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때문이라는것은 세계가 공인하고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각에도 남조선당국은 남의 눈치를 보면서 민족내부문제를 계속 외부에 돌리고다니며 구걸하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

오늘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념원이다.

지난해 남조선에서 반미자주화의 기치밑에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투쟁이 세차게 벌어졌지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새해에 들어와서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은 올해에도 진보력량을 총결집시켜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충강, 당국의 외세의존책동을 반대배격하는 다양한 활동을 적극 벌려나갈 의지를 표명하고있다.

지나온 력사와 오늘의 현실은 사대와 외세의존은 분열의 길, 망국의 길이며 오직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투쟁해나갈 때만이 평화와 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온 겨레는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해치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굳게 단결하여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아가야 한다.

본사기자 박철남

1995년은 조국해방 50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였으며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나라의 통일을 기어이 이룩할 운 겨레의 통일지기가 만천하에 힘있게 되시던 해였다.

이해에 공화국정부는 조국해방 50돐 민족통일대축전을 열에 대한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주제84(1995)년 1월 1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해당 부문의 책임일꾼들을 가까이 부르시어 아버지수령님의 통일유훈을 하루빨리 실현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는데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하겠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1월 2일과 1월 4일에도 일꾼들에게 조국통일과 관련한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조국해방 50돐이 되는 1995년에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으며 그로부터 며칠후인 1월 11일 또다시 조국해방 50돐을 계기로 전 민족적범위에서 거족적인 통일운동을 벌려나갈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이리하여 1월 24일 평양에서는 공화국 정당, 단체인합회의가 열리었다.

연합회에서는 조국해방 50돐을 맞으며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고 8.15를 계기로 관공정에서 대민족회의를 열어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를 협의확정할데 대한 제안을 담은 호소문을 채택발표하였다.

공화국 정당, 단체인합회의의 호소는 해외동포들속에

서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공화국 정당, 단체인합회의의 호소문이 나가고 8.15통일대축전에 대한 온 겨레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3월 7일에 열린 공화국 정당, 단체인합회의에서는 조국해방 50돐 민족통일대축전을 성사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주관해나갈 비상설조직으로서 《조국해방 50돐 민족통일대축전 북측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남조선에서는 여러 통일운동단체들과 개별적인사들에 의해 4월 22일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해외동포들도 6월 20일에 《조국해방 50돐 민족통일대축전 해외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7월 11일부터 15일사이에 중국의 베이징에서는 조국해방 50돐 민족통일대축전 북, 남, 해외준비위원회 대표들의 회담이 진행되고 공동합의문이 채택되었다.

7월 21일에 발표된 공동합의문에는 민족통일대축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국해방 50돐 민족통일대축전 민족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민족통일대축전

의 3자공동행사를 8월 15일 관공정에서 하고 그밖의 행사들은 북, 남, 해외가 각자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기지역에서 진행하며 공동행사의 하나로 대민족회의 또는 통일대토론회를 가질데 대한 문제 등이 명기되어있다.

공화국정부의 주동적인 노력과 조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대축전사업을 과감히 키워버린 반동일세력의 온갖 간계와 도적이 짓부셔지고 조국해방 50돐 민족통일대축전은 성과적으로 막을 올리게 되었다.

1995년 8월 13일 민족의 심장 백두산에서는 온 겨레의 통일지향과 의지를 안고 조국해방 50돐 민족통일대축전장으로 향하는 북과 남, 해외동포대표들의 장엄한 통일대행진이 시작되었다.

8월 14일에는 평양의 김일성경기장에서 10만여명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민족통일대축전행진대를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이날의 군중대회에서는 사신을 해치고 달리는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 대표들도 참가하였다.

우리 민족의 강렬한 통일지향속에 맞이하게 되는 조국해방 50돐이 되는 8월 15일, 이날 민족분열의 상징으로 되어온 관공정은 민족의 대단결로 통일의 새 기치를 마련하려는 겨레의 통일열망으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관공정 앞마당에서는 성대한 개막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이어 통일각에서 민족공동의 조국통일방도를 협의확정하기 위한 북, 남, 해외 정당, 단

체들의 대민족회의가 진행되었다.

대민족회의에서는 북측대표와 해외대표의 기조보고들에 이어 토론이 진행되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우리 겨레앞에는 민족공동의 조국통일방도를 협의확정하여야 할 과제가 급선무로 나서고있다고 하면서 민족공동의 조국통일방도를 확정하는것은 통일운동앞에 공동의 목표와 방향을 밝혀주고 호상협력과 공동행동의 기초를 마련해줄것이며 통일운동대렬의 단결을 강화하고 운동의 추진력을 배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반동일분열주의자들이 내세우고있는 《제도통일론》의 부당성, 반동성을 까발리고 우리 조국의 통일은 오직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량방제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대민족회의에서는 량방제 통일방안을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로 확정하고 7천만개체로 보는 호소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또한 이날 관공정의 통일각에서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6차 범민족대회와 범청학련중앙위원회 제1차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에 이어 관공정에서는 범청학련 공동연단, 조국해방 50돐경축 통일음악회, 북, 남, 해외통일미술전시회, 범청학련 사진 및 미술전시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조국해방 50돐 민족통일대축전은 량방제방안을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로 확정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력사적인 축전이었으며 온 겨레의 뜨거운 통일열망과 의지를 과시하고 통일의 세한 꿈을 일으켜 통일운동에 새 활력을 부여준 민족적회합이었다.

본사기자 홍범식



통일을 불러

한 애국지사의 인생행로를 더듬으며 (2)

민족이 나아가갈 진로를 명철하게 밝혀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빛나는 예지와 애국애족의 정신에 감복한 안재홍선생은 그이를 만나뵈고싶은 마음속충동을 누를수 없었다.

당시 남조선에서는 외세의 단독선거음모를 반대하여 일어난 제주도인민들의 4.3인민봉기의 확대로 급해맞은 미국이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모조리 죽이고 파괴하며 불태우는 《초토화작전》을 감행하면서 제주도의 산과 들을 인민들의 피로 물들이고있었다.

파괴하여 평소에는 좀처럼 속을 내비치지 않던 그였으나 죽도를 유린하고 거세를 무참히 학살하면서 민정장관파위는 아무때나 차버릴수 있는 일시적인 리용물로 밖에 보지 않는 미국에 대한 울분을 더는 누를수 없었다.

미국은 《문명국》이 아니라 야만인의 나라이며 미군은 《해방자》, 《인조자》가 아니라 강점자였다.

미국의 정체를 바로 보게된 선생은 그때까지도 미국의 옷자락에 매달려있는 자신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느꼈다.

불에 대한 중오가 커갈수록 선생의 마음은 정의에 대한 동경으로 더욱 불타오르고있었다.

선생은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우고 아예 단 사람이 되어 돌아온 김구, 김구식선생을 만나 그들로부터 그이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넓은 도량과 한없이 겸허하고 소탈하신 인품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시종 흥분되는 마음을 견잡지 못하였다.

그러하여 선생은 공산주의자라고 하면 던져놓고 한부



안재홍선생

류에 놓고 질시하던 지난날의 편견을 버리고 주저없이 새로운 길을 택하였다.

그는 자기의 동료들과 벗들을 모아 신생활회를 조직하고 그 회장으로서 김구, 김구식선생들이 조직한 통일축전회의회와의 령계밑에 미군철거와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한 의로운 활동을 벌려나갔다.

신생활회의 결성은 안재홍선생이 어지러운 과거와 인연을 끊고 민족적정신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실천행동이었으며 인생말년이나마 애국과 정의의 위대한 길에서 값있게 살아가려는 그의 굳은 결의의 표시이기도 하였다.

련공련북이 애국의 길을 확신한 그였기에 외세에 의해 강요된 지난 전쟁시기 서해해방을 꾀동속에서 맞이하였으며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정치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영웅한 조선인군 부대들의 승전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선생은 민족의 힘을 천백배로 키워주시 위대한 수령님을 따르는 길에 조선의 양양한 앞날이 있다는 신념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였다.

하기에 선생은 전략적인 일시적후회의 준엄한 나날에 사소한 마음의 동요도 없이 북행길에 오를 단호한 결심을 내리셨던것이다.

늙은이가 어떻게 먼길을 가겠는가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김일성장군님을 따르는 길에 겁이없음이라야 되겠소.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서야 장군님 계신 북으로 가서 가야 하겠소.』

주시고나서 여직껏 여러분들을 한번 만나보지 못하였는데 오늘은 흥금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시며 남조선의 정치체제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교시하시였다.

이어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오찬을 베푸시고 안재홍선생에게 많이 들라고 손수 음식까지 권하시였다.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는 몇몇 잊지 못한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날이 갈수록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에 선생은 뜨거운것을 삼키었다.

후날 선생은 그때를 회상하여 이렇게 썼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 자신도 《손잡기 곤난하다》고 생각한 사람까지 다 포섭하고 같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나는 자신이 협소하고 용감한 결백을 가지고있는데 대하여 심각한 자책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아버지수령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그이께서 조국과 민족을 얼마나 열렬히 사랑하시며 사람들을 아끼시는가 하는것을 깊이깊이 깨달을수 있었다.

나는 그날의 감격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

본사기자

통일교실 하나의 조선로선



우리 민족은 삼천리금수강산에서 반만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화랑정신을 이으며 살아온 하나의 민족이다.

삼천리강토가 두동강이나 70여년의 긴긴 세월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는것은 철저히 외세가 강요한것이지 결코 우리 겨레가 바란것이 아니다. 다 알고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화국은 시종 분열로선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로선을 견지해왔다.

때문에 공화국을 바로 리해하는데서 이에 대해 잘 아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한 공화국정부의 로선을 한마디로 특징짓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이다.

이것은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자주의 사업으로 내세워온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로선이다.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은 나라와 민족의 완

전한 자주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민족자주의 로선이며 통일조국의 부강발전을 전민족의 통일번영을 위한 참다운 애국애족의 로선이다.

공화국은 북남이 대결하고 충돌하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을 지향하고있다.

해방직후의 복잡다단한 정치정세속에서 북과 남의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폭넓은 민족대회합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가 마련되고 이 회합에서 사대매국세력의 민족분열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투쟁을 벌릴데 대해 일치한 합의를 이룩한것은 공화국의 자주적인 조국통일로선, 하나의 조선로선의 빛나는 결실이었다.

그 이후에도 공화국은 온 겨레의 절절한 통일념원과 지향을 반영하여 조국통일

을 자주적으로,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많은 합리적인 통일방안과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공화국은 1970년대에 격페상태에 있던 북과 남사이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고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가 천명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을 채택하게 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용납하는 기조우에서 나라의 통일을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기본방도가 밝혀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이 제시되게 하였다. 내외분열주의자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소동으로 말미암아 조국

과 민족애에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었던 1990년대에 조국통일을 위한 전진적대단결10대강령이 발표된것도 공화국의 애국애족의 통일로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새 세기에 들어와 북남사이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북남공동선언들이 려이 채택될수 있었것 역시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하루빨리 통일된 조국을 안아오려는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자주통일로선, 하나의 조선로선의 기대한 생활력의 뚜렷한 증시로 된다.

외세가 강요한 분열의 비극을 갈장내고 하루빨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온 겨레의 강렬한 지향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다.

조선은 하나이며 우리 민족은 하나의 조선로선, 조국의 자주적통일방침에 따라 반드시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겨오야할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민족적차별과 적대행위를 규탄하는 재일동포들의 투쟁

모들과 일본시민, 해외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알려진것과 같이 지난해 8월에 교토부 우토로지역에서 일어난 방화사건은 재일동포들의 인권과 생활권, 생명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일본우익강력파들의 반인륜적

인 민족차별행위,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극도의 적대적의식의 발로로 세인의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재일동포들이 사는 여러채의 살림집들과 재일조선인운동의 력사를 담은 자료 등 귀중한 재산이

소실되었다.

하기에 일본내에서는 물론 남조선과 국제사회에서 재일동포들을 파닉으로 삼고 감행되는 치명적인 범죄행위를 단죄규탄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이 교토시

내에서 《우토로에서의 방화사건을 용납하지 않는다! 차별행위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시민집회》가 열리었다.

집회에서는 총련일꾼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발언이 있었으며 호소문이 채택

되었다.

발언자들은 《범인에게 재일동포들에 대한 중오와 력사기록을 없애버리려는 동기가 있었다면 매우 악질적인 범죄행위이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사건이 두번다시 벌어지지 않는 사회를 후대들에게 물려주자고 호소하였다.

본사기자